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A



정답 및 해설

신사고

민현식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문학의 숲과 나무 ① 자화상_윤동주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쪽

- 01 ② 02 ⑤ 03 ③
04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05 사나이

- 01 이 글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풍자적, 해학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고백적 어조가 드러난다.
- 02 이 글은 우물 속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현실 속 '한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3 '우물'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초라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물 속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곳은 아니다.
- 04 화자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면서 '사나이'인 화자 자신에 대해 '미움 - 가엾음(연민) - 미움 - 그리움'의 정서의 변화를 보여 준다.
- 05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로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성찰의 대상인 자신(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2쪽

- 06 이 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물을 떠나 돌아갔다가, 연민을 느껴 도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본다. 즉 미움은 우물을 떠나 돌아가게 하였고, 연민은 다시 우물 앞으로 가서 들여다보게 하였다.
- 12 대구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15 우물에 비친 풍경은 여러 자연물을 열거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도록 하는 우물 속 풍경일 뿐,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물의 모습이 아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4~017쪽

- 1 ③ 2 ③ 3 ③ 4 ① 5 ③
6 ④ 7 ④ 8 ③ 9 우물
10 ③: 미움, ⑥: 연민, ⑦: 미움, ⑧: 그리움 11 ㉠: 반성적, ㉡: 현실적
12 해설 참고

- 1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현실의 초라한 자아를 의미한다.
- 2 이 글의 시적 화자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우물에 비친 '사나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즉, 화자는 보이지 않지만 우물에 반사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나이'가 바로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청자는 화자(=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나이'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다. ② 시인이 '사나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사나이)을 관찰하는 것이다. ④ '미움'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⑤ 경어체를 쓰는 것이 화자와 청자의 신분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 3 화자는 우물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자아를 성찰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방향은 확인할 수 없다.
- 4 이 글에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보기>의 화자도 '구리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망국민으로 욕되게 살아온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우물'과 '구리거울'은 그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5 이 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성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③이다.
오답 해설 ① 볼이 가는 데 대한 슬픔,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 ④ 현실을 인식한 화자의 자조적이고 허탈한 심정, ⑤ 이별하는 임에 대한 축복이 드러나 있다.
- 6 6면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모태적 공간에서 자연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지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7 ㉠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속 자연물들 중 하나로,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대상은 아니다.
- 8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될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스스로를 밋다고 표현한 것이다.

12 모범 답안

시	적	화	자	는	우	물	속	에	비	친	자	신	을
스	스	로	와	분	리	하	여	'	사	나	이	'	로
고	있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18~021쪽

- 1 ② 2 ② 3 ③ 4 ① 5 ④
6 ④ 7 ④ 8 촉각적, 시각적
9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하였다.
10 ㉠: 우물, ㉡: 들여다봅니다.
11 작품 전체에 안정감(균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또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2 해설 참고

1 ㄱ. 이 글은 화자가 외판 우물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ㄴ. '우물 속에는 ~ 가을이 있습니다.'와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라는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미세한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ㄴ, ㄷ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화자는 미움, 가엾음, 그리움 등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우물'이라는 시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양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우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즉,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이다. ③ 묘사된 우물 속 모습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동경의 세계이다. ④ 화자는 미움과 연민,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일상어를 사용하면서 '사나이'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고 있어 시상 전개가 부드럽게 진행된다.

3 <보기>를 참고로 하면 이 글은 식민지 현실에서 안이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 글의 전체 정서와 거리가 멀다.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는 것은 그 '사나이'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이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나이'는 화자의 내면세계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객관화해서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 우물 속 '사나이'가 미워진 것은 <보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일제 강점기에 어떤 적극적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괴감 때문이다. ④ 그래도 다시 한 번 바라본 '사나이'의 모습에서 여전히 무기력함을 발견할 뿐이다. 화자는 다시 그 무기력한 '사나이'가 미워진다. ⑤ 돌아가다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데, 그 '사나이'는 현실이 아닌 과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추억'의 '사나이'이다.

4 이 글은 자아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역시 '참회록', '부끄러운 고백' 등에서 자아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단호한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 ③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보인다. ④ 입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친양의 태도를 보인다. ⑤ 불가능한 상황을 실정하여 어머니가 영원히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즉 화자는 간절한 염원의 태도를 보인다.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처럼 '독자'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고 있는 것은 ④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내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③ 표현론적 관점, ⑤ 반영론적 관점

6 현실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를 그리워하며 성찰하고 있다.

7 '추억처럼'에는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12 모범 답안

출	로	외	판	우	물	을	찾	아	간	다	는	집	에	서
외	름	고	쓸	쓸	한	화	자	의	모	습	과	달	리	,
우	물	속	풍	경	은	평	화	를	고	아	름	답	다	.

(1) 문학의 숲과 나무 ② 최척전 조위한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25~031쪽

01 ④	02 ⑤	03 ①	04 사실성
05 ②	06 ①, ⑤	07 ⑤	08 조력자
09 ⑤	10 ②	11 ①	
12 통소 소리, 시(들) 읊는 소리	13 (1) × (2) ○ (3) ○ (4) ○ (5) ○		
14 ⑤	15 ⑤	16 적극적, 사랑	

01 최척과 옥영은 전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좌절하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영웅의 활약상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02 최척은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은둔하고 싶다고 하였다.

03 ①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의 사귀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뜻하는 '수어지교'와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②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③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④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04 실제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05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신과 같은 전지능한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세계까지 알고 있다.

06 ①은 옥영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옥영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최척이 승려가 됨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07 중국의 실제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08 돈우는 왜적이지만 옥영의 명민함을 알고 마음에 들어하여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옥영을 가련히 여기고 도와주며, 장사하러 나갈 때 항해장 일을 맡겨 함께 돌아다닌다. 이처럼 돈우는 왜적이지만 옥영의 목숨을 구해 주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09 이 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는 전란 속에서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를 통해 당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인공인 최척과 옥영은 전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좌절하는 평범한 인물들이며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10 7에서 송우는 최척에게 불로장생의 이치가 없다며 함께 장삿배를 타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신선 사상에 부정적이다.

11 최척은 아내가 지은 시를 듣고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과 놀라움으로 말을 못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

12 최척과 옥영은 통소 소리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서로를 알아보고 재회하게 된다.

- 13 (1) 이 글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된다.
- 14 포로수용소에서의 최척과 몽석의 만남은 특별한 이유(원인)가 없는 우연적인 만남에 해당한다.
- 15 최척과 옥영의 재회는 두 사람의 비범하거나 신이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인물들이 인내와 노력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고전 소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16 옥영은 최척에게 먼저 구애의 쪽지를 보내 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이 가져온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2쪽

- 02 이 글에 전기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 04 최척은 중국 말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여유문과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 05 여유문은 최척의 사정 얘기를 듣고 최척이 명나라에 같이 가도록 도와주었다.
- 07 연곡사에서 최척이 아닌 최숙이 우연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몽석과 재회하게 된다.
- 09 옥영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 돈우로 인한 것은 아니다.
- 10 장륙불은 옥영의 자살을 막는 역할을 할 뿐, 옥영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지는 않았다.
- 12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했다.
- 14 두 인물의 재회는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이들이 이향하고자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34~039쪽

- 1 ④ 2 ④
- 3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것
- 4 '장륙불'은 옥영의 자살을 막고, 앞으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옥영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 5 천우신조(天佑神助) 6 ⑤ 7 ④ 8 ②
- 9 ② 10 ⑤ 11 통소, 시 읊는
- 12 ㉓: 평범, ㉔: 사실

- 1 이 글에서는 최척의 가족이 정유재란으로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인물 간의 대립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2 이 글은 허구화된 소설에 속한다. 사실적 기록을 모티프로 차용하되 작가가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⑤ 이 글에서 이별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띠지만 이별은 어느 곳,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 6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 특히 (7)에서의 만남의 과정이나 (8)에서의 부처의 도움 등은 우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다.
 - 7 옥영이 고난을 헤치고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이다. '장륙불'은 다만 옥영의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 8 이 글은 전쟁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최척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9 일본인 배에서 들려오는 염불 소리를 듣고 최척은 통소를 내어 본다. 이를 들은 옥영은 조선의 곡조인 통소 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시를 읊게 된다. 이 소리를 들은 최척은 이시가 아내가 지은 시이며, 시를 읊는 소리마저 아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아침에 일본인 배에 찾아가서 밤중에 시를 읊는 사람을 수소문하게 되고 드디어 옥영과 재회하게 된다. 따라서 최척과 옥영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들이 재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일본인 배를 찾아가는 사람은 최척이므로 동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③ 우연히 통소 소리와 시 읊는 소리를 듣게 되어 만나게 된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자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최척의 주변 사람들은 최척의 사연을 듣고 최척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우여곡절도 일어나지 않았다.
- 10 이 글로만 보아서는 옥영이 평소 남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나중에 남편을 만나 반가워하며 감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태도만으로 ⑤의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40~045쪽

- 1 ⑤ 2 최척과 옥영이 재회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3 ⑤ 4 ① 5 ⑤ 6 행복 7 ④
- 8 ⑤ 9 우연성 10 ② 11 ③ 12 해설 참고

- 1 최척은 중국 요흥에서 여유문과 함께 머물다가 여유문이 죽은 후 동정호 등의 명승지를 유람한다. 이후 최척은 청성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만, 송우의 만류와 설득으로 인해 청성산에 가지 않고 안남으로 가게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옥영은 전쟁 중 왜병 돈우에게 잡혀 돈우의 집인 일본 나고야에서 생활하다가 정사를 하는 돈우를 따라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다닌다.

- 3 <보기>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에서는 옥영과 최척의 삶이 병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두 인물의 삶을 함께 보여 주고 있으며, 두 인물 모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대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구조 속에 옥영과 최척 사이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옥영이 돈우에게 납자인 체하였기 때문에 돈우를 따라 안남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며, 최척 역시 자신의 누이와 혼인하라는 여유문의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최척과 옥영이 극적인 해후를 할 수 있었다.

4 최척은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가던 여유분이 죽자 의탁할 곳이 막막해진다. 이러한 최척의 상황은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 해설 ㉔ 길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 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㉓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㉔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㉕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5 송우는 세상에 뜻을 버리고 축 땅(청성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최척에게 세상의 이치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아가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7 이 글에 드러난 사건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무리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전 소설에 흔히 사용되는 전기적 요소의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8 지난밤에 옥영은 최척의 통소 소리를 듣고 예전에 들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에 낯된 생각을 하게 되어 시를 읊는다. 또한 최척은 이 소리를 듣고 아내의 목소리라고 여긴다. 밤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주인공들이 맞이한 새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밤은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이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어 긴장은 해소된다.

오답 해설 ① 밤에 엽불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주인공들의 재회를 현실적 문제와의 대결로 볼 수도 없다. ② 밤은 재회의 계기가 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운명과의 대결이나 주인공의 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아침에 조력자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③ 아침에 최척은 일본인 배에 찾아가 시 읊은 사람을 찾으므로, 아침은 계획이 실행될지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아침은 주인공들이 재회하는 시간이므로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최척이 옥영의 시를 듣고 아내가 지은 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밤에 옥영이 읊은 시는 최척과 이별하기 전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가 옥영이 겪은 이산과 유랑의 체험이 계기가 되어 지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이 글이 실제 체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했는데, 경자년 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이 글에 역사적 실제성을 부여해 준다. ③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걸쳐져 있다. 이 부분은 중국인들과 함께 장사를 다니던 최척이 일본인 배에 타고 있던 옥영을 안남(베트남)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인물들이 외국에서 재회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조선말이나 조선 가락 등이 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이 글에는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 각국 백성들의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최척의 말을 듣고 두홍이 분연히 나서는 장면은 이와 같은 인류애적 연민을 잘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11 최척이 통소를 불고 난 뒤 시를 읊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시를 읊은 사람이 아내라고 확신하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12 **모범 답안**

	< 최 척 전 >	에 는	영 응 이	등 장 하 지	알 고
전	란 의	참 상 이	사 실 적 으	로 형 상 화	되 어
있 는	반 면,	< 보 기 >	에 서 는	박 씨 라	는
여 성	영 응 이	신 이 한	도 술 을	부 려	적 군
을	제 압 하 고	있 다.			

(2) 쓰기과 읽기로 만나는 세상

- 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 소광리 소나무 숲 신영복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49~051쪽

- 01 ㉕ 02 ㉓ 03 ㉕ 04 비판적
- 05 (1) ○ (2) ○ (3) ○ (4) × (5) ○ 06 ㉔
- 07 술방울 08 ㉓: 나무, ㉔: 자루

01 전기성이란 전해져 내려오는 기이한 성질, 즉 비현실적인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전기성은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오답 해설 ㉓ 신변잡기란 주변의 모든 것이란 뜻으로, 수필은 주변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

02 이 글은 소광리 소나무들과 '우리들'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된 표현 방식은 대조인 ㉓이다.

오답 해설 ① 정의, ② 분류, ④ 예찬, ⑤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03 필자는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나무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04 ㉓에서 필자는 현대인이 소비의 주체로 소비만 일삼으며, 급기야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05 (4) 소광리의 소나무가 아닌 남산의 소나무들이 문명에 고립되고 경쟁수들에 의해 내몰리고 있다.

06 필자는 '소나무'에서부터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확장하면서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즉 필자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이 글에서 필자는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필자 자신의 폭력성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07 ㉔을 통해 술방울이 고난 속에서 지조의 가치를 지키는 소생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08 '나무'는 인간을, '자루'는 도구를, '쇠'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다.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자루', 즉 도구가 되어 주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2쪽

02 필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05 필자가 '당신'에게 엽서를 보내는 편지글 형식이다.

07 소나무가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도 우람하게 자란 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 08 필자는 조선 정궁의 기본 공계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
- 09 식물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이며, 인간은 최대의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 10 산판일을 하는 사람은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칠 것을 우려해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분율이다.
- 13 자연(소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4~057쪽

1 ㉓ 2 ㉑ 3 ㉕ 4 ㉓ 5 ㉒

6 ㉒ 7 ㉑ 8 벌, 소나무 9 예시

10 아카시아, 활엽수

11 경북공 복원에 엄청난 양의 소나무들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 1 이 글에서 필자는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 2 묵묵히 풍상의 세월을 견뎌 온 소나무처럼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을 의미한다.
- 3 필자는 소광리 숲에서 인간이 만든 '경계학의 폭력성',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깨닫고 깊이 반성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4 ㉓ '쇠'는 폭력을, ㉕ '나무'는 인간을, ㉑ '자루'는 도구를 상징한다.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도구가 되어 주지 않으면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 글의 필자는 저자 신영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으며, 저자가 문명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에 대해 다짐하고 있다.
- 6 서평에 대한 반응이 아니므로 윗글에 대한 댓글로 적절하지 않다.
- 7 필자가 독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 9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구체적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58~061쪽

1 ㉕ 2 ㉕ 3 ㉔ 4 ㉒ 5 ㉑

6 해설 참고 7 인용, 독자와의 상호 작용 8 해설 참고

- 1 이 글은 수필로 필자의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된다.
 오답 해설 ① 설득하는 글 ② 설명하는 글 ③ 서사 갈래 ④ 설득하는 글의 특징이다.

- 2 솔방울을 심으려는 목적으로 주워 들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 3 분류의 방법을 통해 나무의 종류를 설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4 ㉑은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으로 독자와의 상호 작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5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금강송의 상품 가치만을 인정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굵고 뒤틀린 나무가 고난을 극복한 데서 지조의 가치를 읽어 냈다는 것에서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 모범 답안

수	필	은	필	자	의	경	험	과	깨	달	음	의	구	조	
로	이	루	어	져	있	다	.	<	보	기	>	에	서	필	자
는	소	광	리	소	나	무	숲	에	서	소	나	무	를	보	
는	경	험	을	하	면	서	좁	은	땅	에	서	도	우	람	
한	자	태	를	드	러	내	는	소	나	무	에	감	탄	하	고
많	은	것	을	소	비	하	기	만	하	고	무	엇	하	나	
이	루	어	내	지	못	한	자	신	을	반	성	하	고	있	
다	.														

8 모범 답안

무	한	경	쟁	의	비	정	한	논	리	에	내	를	려	생	
존	에	위	협	을	받	고	있	다	.	'	솔	방	울	'	은
황	폐	해	지	고	척	박	해	진	환	경	에	서	도	소	생
수	있	는	저	력	과	희	망	을	의	미	한	다	.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㉒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_이영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65~069쪽

01 ㉓ 02 ㉕ 03 ㉔

04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05 ㉑ 06 ㉑ 07 ㉕ 08 연구의 자유

09 ㉔ 10 ㉔ 11 ㉕ 12 자유, 규제

- 01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다. 논설문에서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오답 해설 ① 문학적인 글, ② 수필, ④ 설명문, ⑤ 서사 갈래의 특징이다.
- 02 이 글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제시되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배아 복제 연구로 인한 장점과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인간 배아 복제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첨단 과학 기술이므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3 ㉠은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05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 계약이 맺어지고, 이는 후에 제1차 사회 계약의 발생 배경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06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의 범주로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연구 자격과 관련된 자유는 논하지 않았다.
- 07 5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부 기관을 통한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 지원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09 10에서 제2차 사회 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0 9에 따르면 제2차 사회 계약하에서 과학 연구 활동은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 11 ㉠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 12 11에서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70쪽

- 03 이 글의 쟁점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이다.
- 05 이 글은 논설문이므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 06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동등하게 제시하고 있다.
- 07 과학 연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 09 '제1차 사회 계약은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하는 정책이다.
- 10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 13 '제2차 사회 계약은 국가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72~075쪽

- 1 ㉠ 2 ㉠ 3 ㉠ 4 ㉠
- 5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동시적 방법) 6 해설 참고
- 7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 8 인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 9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 1 이 글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 논설문이다.
오답 해설 ① 수필 ② 설명하는 글 ③ 서사 갈래 ④ 설명하는 글의 특징이다.
- 2 배아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며,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3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는 하나의 쟁점에 대한 대립적인 두 입장과 그에 따른 논거가 제시되어 있다.
- 4 제1차 사회 계약은 국가는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모범 답안

제 1 차	사 회	계 약 은	과 학	연 구 를	규
제 하 지	알 고	오 로 지	지 원 만	을 해	주 는
정 책 인	반 면,	제 2 차	사 회	계 약 은	이
윤	증 대 와	국 가 의	경 제 적	경 쟁 력	제 고
에	기 여 하 는	한 에 서 만	지 원 을	해	주 는
정 책 이	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76~079쪽

- 1 ㉠ 2 ㉠ 3 ㉠ 4 ㉠ 5 ㉠
- 6 해설 참고 7 해설 참고 8 해설 참고

- 1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고 (가)에서 밝히고 있다.
- 2 제2차 사회 계약의 등장 및 이로 인한 영향과 문제점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상반된 입장은 나타나 있으나,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3 '제2차 사회 계약의 영향으로 확대된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 주장'이 (라)의 적절한 내용이다.
- 4 지원을 받기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를 한 사례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로 쓸 과학 연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예시로는 원자 폭탄이 (나)에 제시되어 있다. ③ 과학이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과학 연구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라고 (나)에 제시되어 있다. ④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다)에 제시되어 있다. ⑤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해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법학자들의 입장이 (가)에 제시되어 있다.

5 ㉠이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반론으로 적절하다.

6 **모범 답안**

인	간	배	아	복	제	연	구	를	규	제	해	야	한
다	는	입	장	이	다	.	이	에	대	한	는	거	로
인	간	배	아	복	제	가	비	도	덕	적	인	행	위
수	반	할	수	있	다	는	점	과	인	간	복	제	로
나	아	갈	수	있	다	는	점	을	들	수	있	다	.

7 **모범 답안**

'	제	1	차	사	회	계	약	'	은	공	공	의	이
을	위	한	과	학	연	구	성	과	의	극	대	화	를
위	해	국	가	과	학	연	구	를	지	원	만	하	고
과	학	자	공	동	체	의	자	율	성	을	존	중	하
책	이	다	.	'	제	2	차	사	회	계	약	'	은
의	상	품	화	가	가	속	화	되	는	경	향	으	로
학	연	구	활	동	은	산	업	적	이	윤	중	대	와
국	가	의	경	제	적	경	쟁	력	제	고	에	기	여
한	에	서	만	지	원	을	받	는	다	.			

8 **모범 답안**

'	제	2	차	사	회	계	약	'	의	결	과	연	구
비	밀	주	의	가	커	지	고	,	과	학	연	구	활
거	대	한	연	구	과	제	방	식	으	로	바	뀌	었
이	러	한	경	향	에	따	라	개	별	과	학	자	들
전	체	연	구	내	용	을	파	악	하	고	그	것	을
주	적	으	로	통	제	하	는	것	이	어	려	워	졌
지	원	을	목	적	으	로	한	비	윤	리	적	인	연
부	정	행	위	도	나	타	나	게	되	었	다	.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85~091쪽

- 01 ③ 02 ⑤ 03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 원리
- 04 요령의 격률 05 ① 06 ④ 07 관용
- 08 선생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09 ③ 10 ② 11 겸양 12 동의를 격률
- 13 (1) ○ (2) ○ (3) ○ (4) ○ (5) × (6) ○
- 14 ④ 15 ①
- 16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꺼내고 있다.

- 01 ③은 칭찬의 격률에 해당한다. 칭찬의 격률은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02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대화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를 지켜야 한다.
오답 해설 ②는 순서 교대 원리에 해당한다.
- 03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와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순서 교대 원리를 지켜야 한다.
- 04 은지는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요구만 내세웠으므로 요령의 격률에 어긋난다.
- 05 <보기>의 세아는 엄마에게 요리 실력이 없고 음식 맛이 없다며 핀잔을 주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기분 나빠서 다시는 요리를 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의 표현은 최대화하는 칭찬의 격률을 위반한 예이다.
- 06 칭찬의 격률은 칭찬하며 말하기로, 칭찬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 방법 중 하나이다.
- 07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는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지킨 말하기에 해당한다.
- 08 시연은 수업이 어렵다며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에게 건의나 부탁의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이 좋다. 관용의 격률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

- 09 겸양의 격률은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 규칙이다.
- 10 승우는 서연이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
- 11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을 겸양의 격률이라고 한다.
- 12 시연이는 은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불일치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대와 대화할 때에는 시연이처럼 상대의 의견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감을 표현한 다음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13 (5)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 14 대화를 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며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
- 15 서연이는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고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하고 있다. 서연이의 말이 길어지자 승우가 지적하고 있다.
- 16 주말에 어디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육이가 화제와 관련 없는 웃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92쪽

- 01 대화의 흐름은 순서 교대 원리와 관련이 있다.
- 04 겸양의 격률은 '칭찬과 비방'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일치와 차이'의 측면과 관련 있는 원리는 동의를 격률이다.
- 07 칭찬의 격률은 상대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 비방을 최소화하는 규칙이다.
- 08 칭찬을 최대화하여 말한 뒤, 개선할 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순서 교대 원리에 맞게 이야기해야 한다.
- 12 항상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감한 뒤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14 양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격률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94~099쪽

- 1 ㉠ 2 ㉡ 3 ㉢ 4 ㉣ 5 ㉤
- 6 ㉥ 7 ㉦ 8 ㉧ 9 공손성의 원리
- 10 이익, 부담

- 11 (1) 관용의 격률 (2) 서연은 선생님이 준 자료가 어려움을 탓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부담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관용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12 상대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3 성규는 태호의 마음을 넘겨 줌과 태호를 비방하며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1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상대의 제안에 공감한 뒤,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어떨까?'와 같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다.
- 2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양의 격률이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를 격률은 상대방의 제안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다.
- 3 ㉠ '이견'은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이다.
- 4 재민이는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흐름을 끊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 원리에 어긋난다.
 [오답 해설] ㉣ 석준이는 지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간다.
- 5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순서 교대 원리이다.
- 6 석재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택권을 주었으므로 지애가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 7 ㉠은 관용의 격률, ㉡은 칭찬의 격률로 공손성의 원리이고, ㉢과 ㉣은 대화의 흐름과 관련되므로 순서 교대 원리이다.
- 8 방학이 언제 시작하느냐는 선미의 질문에 철수는 정확하게 7월 28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다.
 [오답 해설] ㉠ 옷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 철원은 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 오늘 날씨를 묻는 질문에 성문은 어제 날씨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어겼다. ㉣ 저녁 메뉴에 대한 질문에 혜은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 민서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대답을 함으로써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00~105쪽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해설 참고
- 11 해설 참고

- 1 대화가 적절하게 교대되도록 하는 것은 순서 교대 원리이다.
 [오답 해설] ㉢ 다른 이에게 건의를 할 때는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다.
- 2 동의를 격률은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칭찬의 격률은 상대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고 비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별이 진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칭찬의 격률을 어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선택권을 주거나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격률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이익과 부담’은 요령, 관용의 격률, ‘칭찬과 비방’은 칭찬, 겸양의 격률, ‘일치와 차이’는 동의를 격률을 설명한다.

4 ③은 요령의 격률과 관련 있는 대화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는 동의를 격률과 관련이 있다. ①, ④는 동의를 격률을 어긴 대화이고, ②, ⑤는 동의를 격률을 지키고 있는 대화이다.

5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관용의 격률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동의를 격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③ 겸양의 격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④ 친구의 과제를 칭찬하고 개선할 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칭찬의 격률을 고려해야 한다.

6 유미는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고, 서준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7 ①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관용의 격률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④ ③과 ④는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⑤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지기 할 말만 하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8 ‘체험 학습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9 ③은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성운은 혼자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고, ② 성우는 대화 주제와 어긋나는 화제를 꺼내고 있다. ④ 지훈은 지성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고 있으며, ⑤ 민현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10 모범 답안

새	별	은	진	아	의	의	견	과	일	치	하	지	않	음
을	직	접	적	으로	드	러	내	며	동	의	의	격	률	을
어	기	고	있	다	.	이	러	한	말	하	기	는	상	대
에	게	불	쾌	감	을	줄	수	있	으	므	로	먼	저	
상	대	의	의	견	에	공	감	을	표	현	하	고	완	충
인	표	현	이	나	선	택	권	을	부	여	하	는	의	문
을	사	용	해	서	자	신	의	의	견	을	부	드	럽	게
말	해	야	한	다	.									

11 모범 답안

컴	퓨	터	부	팅	이	잘	안	된	다	고	하	는		
등	준	에	게	나	영	은	먼	저	사	과	를	하	기	는
했	지	만	,	원	래	바	이	러	스	가	결	렸	을	수
있	다	고	핑	계	를	대	고	있	다	.	또	한	,	등
준	이	컴	퓨	터	를	잘	못	관	리	한	것	처	럼	이
야	기	하	며	등	준	을	탓	하	고	있	어	진	심	으로
잘	못	을	뉘	우	치	고	있	다	는	느	낌	을	주	지
못	한	다	.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09~117쪽

- 01 ③ 02 ⑤ 03 높임법, 객체 높임법
- 04 (1) 해라체 (2) 하오체 05 ④ 06 ①
- 07 목적어, 조사
- 08 (1)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2) 언니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3) 고객님, 이 그림이 예쁩니다. (4) 아버님, 여쭙볼/여쭙 줄 것이 있어요. (5) 민철 학생/군이 발표해 주십시오.
- 09 ② 10 ① 11 시제, 동작상
- 12 선자가 콩나물국국을 맛있게 먹었다.
- 13 ② 14 ② 15 ⑤ 16 목적어, 부사어
- 17 (1)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2) 오늘 경기의 승패가 민수에 의해 갈렸다.
- 18 ④ 19 ④ 20 ①
- 21 그는 옥수수가 맛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01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모두 화자가 듣는 이(상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02 ⑤는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써서 객체인 ‘어머니’를 높인 객체 높임법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상대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는 방법과 청자를 낮추어 말하는 방법 모두를 포괄한다. ①, ② 격식체인 해라체이다. ③ 격식체인 하오체이다. ④ 비격식체인 해오체이다.

03 <보기>는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4 (1) 의문형 어미 ‘-니’를 사용한 격식체인 해라체의 문장이다. (2) 청유형 어미 ‘-비시다’를 사용한 격식체인 하오체의 문장이다.

05 ‘잡수시다’, ‘주무시다’는 주체를 높일 수 있는 어휘이다.

06 ①은 객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③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생님’과 같이 높임 접미사 ‘-님’을 붙이기도 한다.

08 (1) 문장의 주어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 (2)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계’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3) 높임 필요가 없는 주체 ‘이 그림’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시-’를 없애야 한다. (4) 객체인 ‘아버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높여야 한다. (5)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를 높여야 한다.

09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④ ‘가고 있다.’에서는 ‘-고 있다’를 통해 가는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⑤ ‘다 먹어 버렸다.’에서는 ‘-어(아) 버리다’를 통해 먹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10 사건시(지금)와 발화시(내린다)가 같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②와 ③은 과거 시제이고, ④와 ⑤는 미래 시제이다.

12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었-’을 넣어 과거 시제로 고친다.

13 ‘눈이 와서 내일 등산은 다 갔다.’에서 ‘-았-’은 발화사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었-’과 기능이 같다.

오답 해설 ①, ③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④, ⑤ 발화사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4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지만,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②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5 ⑤는 능동문이므로 ‘다리가 강에 놓였다.’로 고쳐야 피동문이 된다.

17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꾸면 된다.

18 ‘-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누어집니다’라는 올바른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에 ‘-되다’와 ‘-어지다’가 사용되어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달려졌는지’에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달렸는지/달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썹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말썹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19 ④는 인용 표현의 개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은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달하는 방식이다. ③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의 방식이다. ⑤ 조사 ‘라고’는 받침이 없는 말의 뒤에 붙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낸다.

20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1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는 먼저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고’를 사용한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18쪽

03 회의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해야 한다.

04 선어말 어미 ‘-시-’뿐만 아니라 특수 어휘나 주격 조사를 통해서도 실현된다.

06 공적인 상황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평소의 친분과 상관없이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08 미래 시제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먼저이다.

12 추측이나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겠-’이다.

13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20~125쪽

1 ④ 2 ④ 3 ① 4 ① 5 ③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②
11 ⑤

12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주체는 밝히지 않고 버려지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13 그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4 주체 높임법 15 동작상

16 ‘-ㄴ-’을 사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다.

17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1 상대 높임법은 ‘하십시오, 하오, 해요, 해’ 등의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오답 해설 ③ 친구끼리 평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 사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2 ㉠과 ㉡의 대화 상대는 같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높임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오답 해설 ㉡은 사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3 ㉠과 ㉡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다. ㉠은 ‘되다’, ㉡은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이고 있다.

4 높임의 대상이 고객이므로 상대 높임법만 사용하면 된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법에 사용하는 것인데 ㉠에서 주체는 ‘이 제품’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선생님, 여쭙볼 것이 있어요.’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5 ③은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교’를 ‘드리고’로 고쳐야 한다.

오답 해설 ⑤ 선생님은 높여야 하는 객체이므로 ‘물어보다’ 대신 ‘여쭙다’를 사용하였다.

6 ㉠에는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상대 높임법이, ㉡에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객체 높임법이 들어가야 한다.

7 <보기>는 ‘-겠-’을 사용하여 상대의 기분을 추측하고 있다.

8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이 드러나고 강조되는 표현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9 ①은 주어(이 문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음.)가 다른 주체(동생)에 의해 빼앗기는 동작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 나타난다.

10 ㉡의 ‘지워지지’는 어간 ‘지우-’와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의 방법에 의해 바르게 실현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생각한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③ ‘민겨지지는’ ㉡의 방법으로 파생된 피동사 ‘민기다’에 ㉠의 방법인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의 형태이므로, ‘민기지’ 또는 ‘민어지’로 고쳐야 한다. ④ ‘보여진다’는 ㉠의 방법으로 파생된 피동사 ‘보이다’에 ㉠의 방법인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의 형태로,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⑤ ‘잡혀지지는’ ㉠의 방법으로 파생된 피동사 ‘잡히다’에 ㉠의 방법인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의 형태로, ‘잡히지’ 또는 ‘잡어지’로 고쳐야 한다.



- 1 ㉓ 2 ㉕ 3 ㉖ 4 ㉗ 5 ㉙
- 6 ㉚ 7 ㉛ 8 ㉜ 9 역설
- 10 시련이 따른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11 ㉞: 첫사랑, ㉟: 시련(고난)
- 12 해설 참고

- 1 3연의 '바람'은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 2 가. 시각, 청각,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나.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봄까지의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법을 사용하여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3 ㉕는 힘겨움을 이겨 낸 후에 오는 고귀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 4 이 글은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한 성숙한 사랑의 자세, 중요성, 의미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표현한 시는 ㉕이다.

오답 해설 ① 계절(자연)의 순환, ② 가는 봄에 대한 상실감과 애상적 정서, ③ 봄의 생명력, ④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5 '눈'이 내리는 것을 '도전'한다고 표현하여 의인화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설의적으로 표현하여 눈의 쉬 없는 도전을 강조함으로써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싸그락 싸그락'은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으로, 첫사랑을 막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햇살 같은 마음'은 직유법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설레는 마음, 즉 막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뜨거운 열정과는 거리가 멀다. ④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수많은 노력 끝에 피워 낸 사랑에 대한 기쁨과 황홀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반어가 아니라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6 ㉚는 대유법(들=조국)이 사용되었다. 이 글에는 대유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유법, ③ 설의법, ④ 직유법, ⑤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 7 첫사랑을 이루려는 주체는 '눈'이다.

- 8 이 글에서 눈이 나무 밑동에 쌓여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오답 해설 ④ 4연의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댈 자리에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를 통해 연상할 수 있다.

- 10 끝없는 도전 끝에 이룬 '눈꽃'처럼 첫사랑도 시련이 따르며, 그에 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꽃을 피우게 된다.

12 **모범 답안**

윗 글 의	' 눈 '	' 과 '	< 보 기 >	의	시	적	화
자 는	모	두	사	랑	을	이	루
태 도 를	드	러	낸	다	.		

(2) 서사 갈래의 이해

돌다리 _이태준



기본 확인 문제 풀기

- 01 (1) ○ (2) ○ (3) ○ (4) × 02 ㉔ 03 ㉕
- 04 ㉙, ㉚ 05 누이의 허무한 죽음 06 ㉛
- 07 ㉔ 08 ㉚ 09 ㉕ 10 땅, 설득
- 11 ㉔ 12 ㉚ 13 ㉚ 14 돌다리
- 15 ㉚ 16 ㉙ 17 ㉛ 18 경제적, 역사
- 19 ㉛ 20 ㉚ 21 ㉙ 22 ㉕
- 23 가치, 농군 24 ㉙ 25 ㉚ 26 ㉔
- 27 늙은 제비

- 01 (4) ㉙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 제일 완벽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를 통해 창섭이 병원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㉙에서 창섭이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여동생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해설 ㉚ ㉙의 처음 부분에서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와 마지막 부분에서 '창섭은 바람도 쓸쓸할 뿐 아니라'를 통해 시간적 배경이 초겨울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㉕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사건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 03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 형제임을 알 수 있다.

- 04 창섭은 요절한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 슬픔, 착잡함, 안타까운 마음 등을 가지고 '창옥아'라며 이름을 부르고 있다.

- 05 창섭은 누이 창옥이 의사의 오진으로 허무하게 죽은 것을 계기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 06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창섭과 아버지와 대화, 행동, 서술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난다.

- 07 ㉙에서 아버지가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가 기부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08 창섭의 아버지는 땅의 금전적 가치보다 땅 자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즉 창섭의 아버지는 현실적이기도 않고 이해타산적이기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섭이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09 아버지는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는 '안분지족'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뜻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②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③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④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

- 10 창섭은 땅을 팔아 병원을 넓히고자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왔다.

- 11 창섭은 병원은 매년 만 원 이상의 실익을 줄 수 있는 데 비해 땅은 매년 삼천 원의 실익을 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금전적으로 비교하며 땅을 팔라고 설득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을 가장 소중한 여기지만 창섭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다.
- 12 아버지는 창섭의 말을 끝까지 잠잠히 듣고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대답을 유보한 것은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3 어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창섭은 이것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4 '둘다리'는 창섭의 증조부님의 산소에 상들을 해 오기 위해 조부님이 놓으신 것으로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를 상징한다.
- 15 처음 둘다리를 놓을 때는 창섭의 아버지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힘을 보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창섭의 아버지가 둘다리를 놓을 때 힘을 보탤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 16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금전적·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 17 창섭이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을 통해 근대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창섭의 아버지는 땅에 얽힌 가족의 역사와 추억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땅을 금전적·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며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팔 수 없는 것이다.
- 19 창섭의 아버지는 창섭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으며, 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서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신념 때문에 팔지 않는 것이다.
- 20 이 부분에는 땅을 파는 문제에 대한 아버지와 창섭 사이의 갈등이 주로 드러난다.
- 21 창섭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생각했음을 깨닫는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속담은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①이 적절하다.
- 22 아버지는 가업인 농사짓는 일이 창섭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23 아버지는 땅을 팔자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죽을 임시에는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24 이 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 25 아버지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둘다리가 물이 늘어서가 아니라 자갈이 밀

려와 물구멍이 좁아졌거나,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굴러러 쓰러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 26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서 한 말이다.
- 27 아들을 떠나보낸 뒤 아버지는 백낙천의 시를 떠올리며, 그 시에 나오는 '늙은 제비'가 자신의 모습이라 여기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64쪽

- 02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 06 아버지는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려는 생각이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니라고 말했다.
- 07 상징적 소재인 '둘다리, 나무다리'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08 단편적,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 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유기적으로 드러나 있다.
- 10 인물의 내면적 심리를 서술하기는 했지만 인물 간의 관계 변화 예고와는 관계가 없다.
- 12 백낙천의 시를 인용하여 자식이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 곁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66~171쪽

- 1 ㉓ 2 ㉕ 3 ㉔ 4 ㉔ 5 ㉔
 6 ㉕ 7 땅 8 땅을 아끼며 직접 농사짓는 사람
 9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10 내면 심리 11 해설 참고

- 1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심리 등 모든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하는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서술자는 시종일관 바뀌지 않으므로 서술자를 교차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창섭의 죽음과 관련된 사연 → 전통적 가치와 관련된 아버지의 사연 → 땅을 팔아 달라는 아들의 부탁 →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아버지 → 둘다리 주변을 살피는 아버지'로 정리하면 된다.
- 3 창섭은 환자를 대하듯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 달라고 부탁할 뿐, 둘다리를 인정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 4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부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땅을 팔아 달라는 근거일 뿐, 애타심과 거리가 멀다.

5 자식들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시로, 늙은 제비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 창섭을 이해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은혜를 모르는 새끼 제비들을 풍자하는 시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금비’는 땅에 대한 애착 없이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시의 지주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11 **모범 답안**

‘	돌	다	리	’	는	과	거	와	현	재	,		그	리	고
미	래	를	연	결	해	주	는	매	개	체	이	다	.	돌	다
리	를	보	수	하	는	행	위	는	과	거	부	터	전	해	지
던	전	통	이	후	대	에	까	지	이	어	지	기	를	염	원
하	는	아	버	지	의	마	음	을	드	러	내	는	것	으	로
볼	수	있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72~177쪽

- 1 ② 2 ③ 3 ③ 4 ④ 5 ⑤
- 6 ③ 7 ①
- 8 ㉠: 돌다리, ㉡: 나무다리, ㉢: 전통적, ㉣: 근대적 9 해설 참고
- 10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11 해설 참고

1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며(ㄴ) 작가가 보존하고 싶은 긍정적인 가치를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ㄱ. 장면에 따른 서술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ㄴ. 인물 간의 가치관의 대립이 두드러지지만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지는 않는다. ㄷ.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2 어머니는 아버지와 창섭의 대화를 다 듣고 눈물을 흘린 후, 창섭에게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섭은 자신의 주장대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다. ② 아버지는 가업을 잇지 않는 창섭을 안타까워하지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④ 창섭은 아버지와 의견 대립 후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을 깨닫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한다. ⑤ 창섭은 자신과 다른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3 아버지는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영풍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라고 말하며 창섭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의 주장이 영풍하다고 생각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4 ⑥는 아버지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땅을 잘 돌보고 소중히 가꿀 사람에게 땅을 팔 것이라는 말로, 아들 창섭의 요청을 받아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식과는 땅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5 ㉠에서 창섭은 자신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다름을 인식하고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절에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지

만, 아버지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창섭이 들어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A]에서 아버지는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이므로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절대 바꿀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의 매화는 시련에도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에서 아버지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늙음에 대한 낙관적 태도, ② 곁과 속이 다름에 대한 비판, ④ 나라(고려)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 ⑤ 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7 아버지는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여기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간다. 따라서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갈.’이라는 의미의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③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④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⑤ 세상이 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모범 답안**

땅	을	이	익	을	얻	기	위	한	수	단	으	로	생
각	하	고	있	으	며	,	금	전	적	인	가	치	로
라	보	고	있	다	.								바

11 **모범 답안**

㉠	는	불	안	정	하	지	만	쉽	게	만	들	수	있
는	것	으	로	근	대	적	가	치	관	을	상	징	한
이	에	따	라	창	섭	은	땅	을	금	전	적	수	단
로	생	각	한	다	.	반	면	에	㉡	는	가	족	의
사	와	추	억	이	담	겨	있	는	것	으	로	전	통
가	치	관	을	상	징	한	다	.	따	라	서	아	버
땅	은	가	꾸	고	돌	봐	야	하	는	존	재	이	며
선	대	의	피	와	땀	이	담	겨	있	는	삼	의	터
전	이	자	천	지	만	물	의	근	거	이	다	.	

(3) 극 갈래의 이해

성난 기계_차법석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81~189쪽

- 01 (1) ○ (2) × (3) ○ (4) ○ (5) ○ 02 ③
- 03 ② 04 단조하고 냉랭하고 음산하다
- 05 (1) ○ (2) × (3) ○ (4) ○ (5) ○ 06 ④
- 07 ④ 08 ① 09 ㉠, ㉡, ㉢
- 10 (1) ○ (2) ○ (3) × (4) ○ (5) ○ (6) ○ 11 ②
- 12 ①, ③ 13 이십 세기 스프링스
- 14 (1) ○ (2) ○ (3) ○ (4) × (5) ○ (6) ○ 15 ⑤
- 16 ① 17 외치며
- 18 (1) ○ (2) ○ (3) ○ (4) × (5) ○ (6) ○ 19 ①
- 20 상실, 회복 21 ㉢: 인간, ㉣: 내면(인간성)

- 01 (2)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빛을 빨아들이고 있다.'를 통해 과장실이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 02 이 글은 회곡으로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는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와 달리 서술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 03 회곡의 해설 부분에서는 줄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 04 이 글에서 무대 역할을 하는 것은 과장실이다. 무대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單調)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라고 하였다.
- 05 (2) 인옥의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잡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이라는 말은 회기에게 한 말이 아닌 남편인 상현에게 한 말이다.
- 06 회기는 가족을 생각하는 인옥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체념하는 인옥에게 측은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회기는 인옥의 말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7 회기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성격이 드러나지만 변덕스러운 성격은 찾아볼 수 없다.
- 08 회기는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냉정하게 인옥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 10 (3) 금숙이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예요?"라고 한 말은 인옥이 회기를 '기계' 같다고 한 것에 놀라서 한 말일 뿐, 인옥이 회기의 별명을 알고 그런 말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1 금숙은 인옥의 말솜씨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회기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 12 회기는 의사인 자신이 살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허무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 13 스펙트스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듯이 회기가 뛰어난 수술 능력은 있으나 냉정한 인간성을 갖고 있음을 꼬집는 별명이다.
- 14 (4) 인옥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상현은 그런 인옥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다.
- 15 회기가 인옥과 대화할 때는 수술을 거절하였는데, 상현과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에게 그것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금숙이 의아해서 쳐다본 것이다.
- 16 ㉓는 상현이 인옥의 죽음을 방관하는 부분이므로 냉혹하게 말하고, ㉔는 회기의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에 대해 반항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다.
- 17 이러한 회기의 태도 변화는 회기가 점차 인간성을 회복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부에서 회기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기계' 같은 인간이었으나 후반부에서는 상실했던 인간성을 점차 회복한다.

- 18 (4) 금숙은 회기가 처음부터 인옥을 수술할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다. 회기는 처음에 인옥과 대화할 때는 수술을 거절하였는데, 상현과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회기의 변화하는 모습에 금숙이 놀라워하고 있다.
- 19 이 작품은 회기와 인옥과의 갈등, 회기와 상현과의 갈등이 주된 갈등 양상이다.
- 20 '기계'는 인간미를 상실한 채 인옥의 호소를 외면하는 회기의 비인간적인 면을 나타내고, '성난 기계'는 기계 같던 회기가 인옥을 살려야겠다며 수술을 결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즉 작품의 제목 '성난 기계'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한다.
- 21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30쪽

- 02 회기는 상현의 가족들이 인옥 덕분에 먹고산다는 사실을 알고 인옥의 수술을 거부하려 온 상현에게 되묻고 있다.
- 05 상현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수술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 06 금숙은 회기에게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 08 회기는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 10 인옥은 수술을 통한 근본적 치료는 해 주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약을 처방하려는 회기를 비판한다.
- 11 상현을 만나기 전에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
- 13 상현은 인옥의 수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려 회기를 찾아 온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92~195쪽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㉔	7 ㉔	8 ㉔	9 물질 문명	10 해설 참고

- 1 회곡은 무대 공연의 대본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이동이 시나리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 2 이 글의 중심인물인 회기는 전반부에서는 비인간적이었으나 후반부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는 입체적 인물이다.
- 3 '속달'은 빨리 배달한다는 의미로, 인옥을 살려 내야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욕과 의지가 드러난다.
- 4 ㉔, ㉔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㉔ 기계처럼 냉정했던 회기가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다.

- 5 ㉠은 인간의 외면을, ㉡은 인간의 내면(인간성)을 상징한다.
- 6 [A]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단순히 월급을 위해 노동을 할 뿐이라는 회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 7 전반부에는 인옥이, 후반부에는 상현이 등장하여 회기와 갈등한다. 전반부에 인옥과 상현은 같이 등장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회기는 전반부에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으나, 후반부에 상현을 만난 이후 그의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내면적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 <보기>에서 작가가 빈민 계층의 열악한 삶과 비인간화되는 세태를 고발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했으므로 상현은 당시의 비인간화되는 세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8 회기는 인옥의 수술을 끝까지 반대하며 아내가 죽도록 방치하려는 상현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하여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하게 된다.

10 **모범 답안**

회	곡	은	무	대	위	에	등	장	하	는	인	물	들	이
대	사	와	행	동	(연	기)	을	통	해	인	물	의
격	과	인	물	이	격	는	사	건	이	나	갈	등	,	상
황	등	을	직	접	관	객	에	게	보	여	준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96~201쪽

- 1 ㉤ 2 ㉠ 3 ㉣ 4 ㉢ 5 ㉤
- 6 ㉤ 7 ㉣ 8 ㉢: 겉모습(육체), ㉤: 내면(인간성, 정신)
- 9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 10 금속은 회기의 변화된 성격을 지적하여 관객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 해설 참고 12 해설 참고 13 해설 참고 14 해설 참고
- 15 ㉠: 서술자, ㉡: 인간성

- 1 이 글에서는 인옥과 회기, 상현과 회기 사이의 갈등을 통해 비인간적인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한 인물의 분열된 의식 세계가 아니라 인물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장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③ 저문지답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대화를 통해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④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에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미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회기가 ㉤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의 “나는 환자의 생명을 ~ 일하는 고용인이니까,”라는 회기의 말로 보아 ㉢에서 회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3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라는 회기의 말을 통해 상현의 비정함에 분노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가)에서 회기는 애원하는 인옥에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인옥의 청을 거절한다. (나)에서 상현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아내인 인옥에 대해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나타난 회기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상현과는 거리가 멀다. ④, ⑤ (나)의 상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의 회기의 성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5 인간성을 회복한 회기가 인옥을 살려 보고 싶어 하는 의욕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애절한 음악보다는 희망적이고 의지가 잘 드러나는 음악이 적절하다.
- 6 ㉠은 상현이 두고 간 담배를 ‘진짜’라고 칭하며, 인간성을 상실한 상현은 상대적으로 ‘가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회기의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사이다. ② 냉정한 회기의 성격을 감정이 없는 기계에 비유하여 비편하고 있다. ③ 기계와 같던 회기가 상현의 태도에 분노를 느낌으로써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④ 인간을 담배에 비유하여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7 상현은 죽어 가는 아내를 방치하려는 인물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11 **모범 답안**

기	계	처	럼	냉	정	하	던	회	기	가	분	노	라	는
인	간	적	감	정	을	느	끼	고	인	간	성	을	회	복
였	을	을	나	타	낸	표	현	이	다	.				

12 **모범 답안**

'	성	난	기	계	'	는	기	계	처	럼	인	간	미	가
없	이	냉	정	하	던	회	기	가	,	아	내	의	죽	음
방	치	하	는	상	현	의	이	기	적	이	고	비	인	간
모	습	에	분	노	하	여	인	간	성	을	회	복	하	게
것	을	의	미	한	다	.								

13 **모범 답안**

㉡	는	인	간	미	를	상	실	한	채	다	르	사	람
의	고	통	을	외	면	하	는	회	기	의	비	인	간
면	을	단	적	으	로	표	현	한	말	이	다	.	반
㉣	는	기	계	가	감	정	을	가	지	게	되	었	다
뜻	으	로	,			'	성	난	기	계	'	는	'
인	간	성	의	회	복	'	을	의	미	한	다	.	

14 **모범 답안**

회	기	는	전	반	부	에	서	자	신	의	안	위	와	이
익	을	최	우	선	으	로	여	기	며	,	이	를	위	해
는	인	물	이	었	다	.	고	통	도	냉	정	하	게	외
인	물	이	었	다	.	반	면	후	반	부	에	서	는	타
인	간	적	인	면	모	를	보	여	주	는	데	,	이	것
금	전	적	인	이	유	때	문	에	아	내	의	수	술	을
반	대	하	는	상	현	의	비	인	간	적	인	태	도	때
이	다	.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

상기_박지원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205~207쪽

- 01 (1) ○ (2) ○ (3) ○ (4) ○ (5) × 02 ㉠
 03 ㉠ 04 ㉠
 05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06 (1) ○ (2) ○ (3) ○ (4) ○ (5) × 07 ㉠, ㉡
 08 ㉠ 09 하늘의 작용

- 01 (5) 코끼리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일이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02 이 글은 다양한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코끼리의 외양과 코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대상(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코끼리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작가의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뒷부분에서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④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여 같고 다름을 검토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사용하는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03 작가는 코끼리를 보고 기이함을 느끼고 있다.
- 04 ㉠은 코끼리의 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는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06 (5) 8에서 작가는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07 이 글에서 코끼리는 단순히 기이하고 진기한 대상이 아니라, 편협한 사람들의 사고를 확장해 주고, 사람들이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넓은 세계를 깨닫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 08 이 글은 고전 수필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 관념을 깨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서정적인 성격은 이 글과는 거리가 멀다.
- 09 뱀들의 작용은 만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하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208쪽

- 02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것이지 코끼리와 닮은 말을 본 것은 아니다.

- 06 코끼리가 뱀을 죽인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 09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비판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 10 작가는 뱀들의 작용은 의도가 없으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긴다.
- 13 이 글에 언급된 거북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로,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 14 코끼리는 뱀과 쥐를 만났을 때 각각 다르게 행동한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210~213쪽

- 1 ㉠ 2 ㉡ 3 ㉢ 4 ㉣ 5 ㉤
 6 ㉥ 7 ㉦ 8 ㉧ 9 연경, 열하 10 코
 11 인용(법) 12 하늘
 13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름의 의도를 반영한다.

- 1 코끼리를 다룰 때 필요한 능력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코끼리가 코를 휘둘러 뱀 두 마리가 죽은 사례를 언급하였다.
- 2 '사나운 뱀'은 다른 대상을 빗대기 위해 끌어온 대상이 아니라 강희 황제 때의 일화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비바람'은 온몸을 뽀뽀거리며 걸어가는 코끼리를 비유한 말이다. ② '말'은 작가가 본 파도 위의 물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③ '소의 몸뚱이'는 코끼리의 몸체를 비유한 말이다. ④ '족집게'는 코끼리가 코로 물건을 집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 3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한다. 교술 갈래는 작가의 경험과 사색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사실적인 문학 양식이다. 허구성을 가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요량'은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라는 뜻이다.
- 5 ㄱ. 작가는 과거에 연경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과 지금 열하 행궁에서 코끼리를 보는 경험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ㄴ. 코끼리의 외양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고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오답 해설 ㄷ. 코끼리의 장단점을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ㄹ. 마지막 문단에서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나 그 인식의 변화 과정이나 의미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 6 작가가 코끼리를 구경한 곳은 중국 연경, 열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코끼리를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작가는 과거에 코끼리를 본 경험을 현재의 경험과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코끼리를 한 번 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작가는 과거에 바닷가를 지나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으며 지금 보는 코끼리가 그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③ 작가는 코끼리의 어진 성품이 눈에서 나온다고 언급하였다. ⑤ 작가가 강희 황제 때 일을 언급한 것일 뿐, 강희 황제에게 오해를 산 것은 아니다.

7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부분을 보고 대상의 본질을 잘못 인식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는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못된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②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된다는 뜻. ④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 들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의 맥락을 살펴보면 ‘길을 들이기 어렵다.’는 ‘범을 키우기 어렵다.’라는 뜻이므로 <보기>의 ㄷ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214~217쪽

- 1 ④
- 2 ③
- 3 ⑤
- 4 ⑤
- 5 ④
- 6 ④
- 7 ①
- 8 해설 참고
- 9 해설 참고

1 ㉠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보편적인 생각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작가는 사람들과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그들의 통념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주역”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나는 알지 못하겠다.’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2 이 글에서 작가는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해 비판하며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 작가는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어금니를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4 ㉢는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 모든 사물의 근거는 하늘에 있고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5 코끼리는 쥐를 만나면 코를 들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답 해설 ㉡ 사람들은 코끼리에 관한 이치를 다 알지 못한다. ㉢ 코끼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다. ㉣ 작가는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천하 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다.

6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들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써야 한다.

7 <보기>는 조카가 서실의 이름을 ‘통곡헌’이라 붙인 일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묻고 답한 이야기를 기록한 글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람들이 ‘통곡헌’이라는 서실 편역에 대해 의아해하자 작가의 조카 ‘친’과 작가가 나서서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 역시 작가가 사람들과 문답을 통해 고정 관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8 모범 답안

㉠	:	갑	갑	하	고	흙	비	자	옥	한	속	에	서
하	늘	이	어	면	것	을	만	들	어	냈	는	지	알
수	없	다	.	㉠	:	코	끼	리	는	당	으	로	고
를	속	이	면	어	금	니	가	먼	저	달	아	씹	는
것	에	방	해	가	되	므	로	사	람	들	이	말	하
하	늘	의	방	해	가	되	므	로	사	람	들	이	말
는	다	.	이	치	는	코	끼	리	에	게	적	용	되

9 모범 답안

작	가	는	하	늘	의	이	치	를	절	대	화	하	여	모
든	것	을	하	늘	의	이	치	와	결	부	시	키	는	당
대	의	확	일	적	인	사	고	방	식	에	대	해	성	찰
고	있	다	.	작	가	의	성	찰	은	당	대	의	지	배
적	통	념	에	서	벗	어	나	는	사	고	방	식	을	보
준	다	는	점	에	서	의	의	가	있	다	.			

- 01 ④ 02 ③ 03 ⑤
 04 사나이(또는 '순수했던 자아')가 자연과 함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05 ③ 06 ③ 07 ① 08 ② 09 재자가인
 10 ① 11 ⑤ 12 문명의 폭력성(파괴성)을 견디는 사람
 13 ① 14 ① 15 ②

01 시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자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파아란 바람이 불고'에서 공감각적 심상(촉각의 시각화)이 사용되었다. ② '파아란 바람'에서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③ '사나이'에 대한 감정 변화를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없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와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⑤ 4연의 '~니 ~~니다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이 글은 화자가 자신의 내적 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행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어조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고백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을 뿐 이것이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3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된다.

오답 해설 ① '매운 계절', '채찍', '겨울' 등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②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사상이 전개됨에 따라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05 최속과 심 씨가 연곡사에서 몽석을 우연히 만나는 사건을 보면 인과 관계에 의한 짜임새 있는 사건 전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대해 독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06 이 글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다.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조력자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갖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④ 옥영은 최척에게 먼저 쪽지를 보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최척은 명나라 장수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이며, 옥영은 돈우라는 왜적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조력자의 도움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이는 <보기>에 따르면 유교적 의(義)가 아니라 인류애적 연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해설 ④ <보기>에 따르면 여러 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08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의탁할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이지功名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옥영은 당대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10 이 글에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11 현대인들은 소나무의 이면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품 가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13 과학자 공동체는 과학이 사회와 분리된 특수한 영역이므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4 '제1차 사회 계약'은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없는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5 ㉠ 기간(基幹)의 의미는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는 기간(期間)의 의미이다.

- 01 ④ 02 ④ 03 해설 참고 04 ② 05 ③
 06 ④ 07 고객님, 이 제품이 예뻐합니다. 08 ④
 09 ⑤ 10 ④ 11 해설 참고 12 ④ 13 ①
 14 ④ 15 ②

01 승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부담을 줄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② 승우는 요령의 격를 버리고 있다.

02 석재는 상대방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말하며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03 모범 답안

상	대	방	의	제	안	을
거	절	하	면	서	의	견
맞	지	않	음	을	직	접
으	로	드	러	내	고	있
상	대	방	에	게	불	쾌
준	다	.				

04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말하기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③ 혼자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므로 순서 교대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05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은 동의의 격률이다.

06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므로 부사어를 높이고 있는 ④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07 점원은 청자인 고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제품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

08 ④는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ㄴ-'을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②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지 않다.

09 ‘말겨진’은 ‘말- + -기- + -어지- + -니’으로, 이때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다.

오답 해설 ① ‘믿겨지다’는 ‘믿-+-기-+-어지다’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어지다’, 혹은 ‘믿기다’로 사용해야 한다.

10 태호는 성규와 민우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를을 어기고 있는 말하기 태도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의 마음을 넘겨짚은 것은 성규이다. 성규는 태호의 마음을 넘겨짚고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11 **모범 답안**

	㉠	에	는	화	분	을	꽤
행	위	의	주	체	가	드	러
나	있	다	.	그	러	나	
㉡	에	는	행	위	를	당	한
'	화	분	'	만	드	러	나
있	고	화	분	을	꽤	행	
위	의	주	체	가	드	러	나
있	지	않	다	.	㉢	에	는
화	분	을	꽤	주	체	를	
숨	기	고	자	하	는	화	자
의	의	도	가	답	겨	있	
다	.						

12 윤석은 겸양의 격를을 어기고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진아와 새별은 윤석이 시화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내자, 칭찬을 하고 있으므로 칭찬의 격를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상대방의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한 뒤에 개선할 부분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해설 ③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14 ㉠의 주체 ‘이게’는 ‘티셔츠’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③ ㉢은 주어진 할머니를 높여야 하므로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인다.

15 ‘떠가는’에서는 ‘-는’을 통해 현재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진행상을 표현하는 것은 ‘-고 있다’이다.

02 이 글은 눈의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결국에는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한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⑤ 음성 상징어 ‘싸그락 싸그락’은 청각적 심상을, ‘난분분 난분분’은 시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다.

05 ‘돌다리’는 아버지가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한다.

07 서사 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오답 해설 ④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는 자전 소설의 경우에도 서사 갈래는 모두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다.

08 아버지는 땅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고,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을 넘기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 ④ 땅을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09 이 글은 극 갈래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여 준다.

10 상현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전반부에서는 회기의 비인간적 모습을, 후반부에서는 회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1 편지는 인옥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의지를 암시한다.

13 이 글은 고전 수필에 해당하므로 허구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 ㉠ 주재(主宰)는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이라는 뜻이다. ㉡는 주재(駐在)의 뜻이다.

15 일반적으로 코끼리의 눈은 간사하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어진 성품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3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228~233쪽

01 ④	02 ②	03 순수함	04 눈꽃	05 ㉢
06 땅	07 ㉢	08 ⑤	09 ①	10 ④
11 ④	12 진짜	13 ②	14 ②	15 ④

01 이 글에는 풍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풍유법은 비유법의 하나로,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표현을 말한다.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사나이'는 화자 자신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성찰하기 위해서이다.	06 ②	07 ③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동이의 격률	
16 ②	17 ②		
18 ①	19 ②	20 ⑤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이치

01 (나)는 '짜그락 짜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미움-연민-그리움'과 같이 변화하고 있지만,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그리워집니다'와 같이, (나)는 '저 황홀 보아라'와 같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시적 대상인 '눈'이다. ④ (가)에서 화자는 우물을 찾아갔다가 떠나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찰을 하고 있을 뿐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사나이가 ~ -ㅂ니다.'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미움-연민-그리움'과 같이 변화하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을이라는 계절이 드러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상상이나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감정 이입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구름, 하늘, 달' 등 주로 시각적 심상을 지닌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03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도전하는 것은 '눈'으로, ㉠에는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과 도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A]와 [B]는 모두 화자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A]는 시적 대상인 '눈'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한 번 먼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인식과 각성이 드러나고, [B]에는 혹독한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인식과 각성이 드러나 있다. ② [A]에는 첫사랑의 상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역설적 수용이 나타나고, [B]에는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역설적 수용이 나타나 있다. ③ [A]는 '봄', [B]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⑤ [A]는 첫사랑의 상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B]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초극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6 최척과 옥영의 극적인 만남이 부각되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남편, 안남 등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으며 경자년이라는 구체적 시간이 나타나 있다. ③ 전란으로 인해 최척과 옥영이 헤어지는 등 백성들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다)에서 송우에 대해 서술자가 그의 성격과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조선 남원에서 명나라(중국), 일본, 안남(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규모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07 최척과 옥영이 재회한 것은 의병으로 간 최척을 끝까지 기다린 옥영 덕분이다. 심 씨는 오히려 옥영을 부잣집 아들인 양생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옥영은 최척에게 먼저 구애의 쪽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최척이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어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으므로 이별의 원인은 임진왜란으로 볼 수 있다. ④ 통소 소리와 시 읊는 소리로 인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두 사람의 재회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두 사람의 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며 천우신조(天佑神助: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08 옥영에게 돈우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지만, 장륙불은 종교에 귀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륙불은 옥영의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옥영으로 하여금 삶에 의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최척과 옥영은 전란으로 인해 헤어졌다가 재회하여 기쁨을 나누고 있다. ②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 잘 살 공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최척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송우는 최척을 설득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장륙불은 옥영의 꿈에 나타나 옥영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⑤ 옥영이 돈우와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최척과의 재회를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09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라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필자의 인식과 견해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소망의 소나무 숲과 남산이라는 실제 공간을 통해 필자의 경험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③ 소나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④ 소나무를 관찰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통해 느낀 필자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소나무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10 ㉠ 뒤의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통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뜻함을 확인할 수 있다.

11 제2차 사회 계약은 '산학 협동'이며,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경향을 제2차 사회 계약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1차적 원인은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터이다. ② 과학 연구 활동이 객관적인 진리 탐구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은 제2차 사회 계약으로 인해서이다. ④ 제2차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과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과학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다는 인식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것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다.

12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나 규제나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자유와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⑤ 현재 많은 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13 ㄱ. 기간: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 ㄷ. 제고: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오답 해설 ㄴ. 선정(善政): 백성을 바르고 어떻게 잘 다스리는 정치. ⑥ 선정(選定):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14 순서 교대 원리는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다른 점을 고집하는 것은 동의의 격률에 어긋나는 것이다.

15 새별이는 진아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16 '상품'이라는 사물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저희'는 듣는 사람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은 조사 '께서'에 해당한다. ③ 선물을 주는 사람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은 '드리시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사-'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은 '드리다'라는 어휘와 '좋아하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이다. ④ ㉠, ㉡, ㉢,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사용되었으며 ㉤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⑤ ㉥에는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한 주체 높임 표현인 '그러시다'와 '주시다'라는 말이 나타나 있다.

17 '먹었겠다'에 쓰인 '-겠-'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추측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심었구나'에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③ '공부하는'에서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④ '읽은'에서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⑤ '볼겠지만'에서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18 ㉠은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되어 이중 피동이 된 것이다. ㉡은 피동문으로 표현하여 어색한 문장이 된 것이다.

19 <보기>에 따르면, 창섭을 자아로 보면 아버지가 세계의 일부가 되고, 아버지를 자아로 보면 창섭이 세계의 일부가 된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있으므로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아들을 포함한 세계에 대해 유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아버지)와 갈등하고 있을 뿐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③ 창섭이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일 뿐 그러한 세계를 '고발'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④ 창섭과 어머니의 갈등이나 이를 중재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지는 않다.

20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아버지는 '돈 있다구 땅이 된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하니?",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 네 어머니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루를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④ 아버지는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21 [A]에서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발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확장 계획과 자금 동원 계획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 자체가 이해관계에 얽매인 것이므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를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④ 창섭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심층을 '입원실로 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숙실을 입원실로 바꾸려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이나 '배려심'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려면 창섭의 발화 내용을 직접 화법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창섭이 말한 내용을 서술자가 간접 화법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지 않는다.

22 인옥은 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회기가 냉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회기를 기계라고 한 것이다. 인옥은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다면서 어린 자식들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한다고 하였으므로 비정한 의식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병원은 회기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곳이며, 어두운 공장은 인옥이 일하는 곳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현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회기는 이러한 비정한 현실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의사로서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 못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④ 회기는 병으로 죽어 가는 인옥을 냉정하게 대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금숙에게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처한 비정한 현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금숙은 병으로 죽어 가는 인옥을 가엾게 여기고 있으며, 회기를 존경하고 연모하고 있다. 이러한 금숙의 태도는 비정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 주는 것이다.

23 회기가 ㉡에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금숙의 말에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숙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라 황당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인옥은 회기에게 수술을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므로 회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말하라는 것은 적절하다. ② 회기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말하며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인옥의 눈을 피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회기는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확고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금숙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회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이 글은 코끼리를 통해 획일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경계하고 있다.